

연속재하 압밀실험에 의한 압밀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Loading Consolidation Test

채 영수¹⁾, Young-Su Chae, 우 승우²⁾, Seung-Woo Woo

¹⁾수원대학교 건설공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ivil Engineering, The Univ. of Suwon

²⁾(주)한라엔지니어링 지반공학부, Geotechnical Engineering Department, Halla Engineering CO., LTD

SYNOPSIS : ILT proposed by Terzaghi was frequently used which is based on one dimensional consolidation theory. But this test require time longer than a week and has problems for extra soft clay such as the squeezing around the consolidation ring. Also consolidation curve is not clearly defined since only a few data is obtained in a t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P_c and the interpretation to determine the consolidation constants are rather complicated.

In this paper, the stress-strain relationship and consolidation constant obtained by CRS and CG-test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by ILT.

Key words : Constant rate of strain consolidation, Constant gradient consolidation, Strain rate

1. 서론

보통 압밀정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Terzaghi가 제안한 1차원압밀이론에 의한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을 이용해 왔으나 이 실험은 약 일주일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연약한 흙의 경우 압밀링 주변으로 squeezing 현상이 일어나는 실험의 방법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얻을 수 있는 data가 적어 압밀곡선이 뚜렷이 정의되지 않으므로 선행압밀하중의 결정이 까다로우며, 단계별 재하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2차압밀량이 서로 다르고, 또한 압밀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결과의 해석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연속재하 압밀실험이 제안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Terzaghi의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과 Wissa(1971)가 제안한 일정변위 압밀실험, 그리고 Lowe(1969)가 제안한 일정동수구배 압밀실험을 통해 가덕도와 인천 국제공항 부지 시료의 응력-변형관계와 압밀정수에 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정변위 압밀실험(CRS)과 일정동수구배 압밀실험(CG)의 적용성 및 타당성 그리고 각 실험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석이론

2.1 일정변위압밀실험

CRS실험은 일정한 속도로 시료에 연직변위를 일으키는 방법의 실험으로 일정한 변위속도로 인해 작용하는 전응력과 하부면에서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을 계속 측정하면서 실험이 진행된다. 해석이론으로는 Smith(1969),

Umesharha(1980), Lee(1980), Wissa(1971) 등 여러학자들에 의해 CRS압밀이론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소변형, 일정한 압밀계수등을 가정에 근거한 Wissa의 압밀이론을 이용하였고 압밀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1)과 같다.

$$C_v = \frac{\partial^2 \epsilon}{\partial z^2} = \frac{\partial \epsilon}{\partial t} \quad (1)$$

배수면으로부터 시료의 높이와 변위에 대한 무차원변수, 시간에 대한 무차원변수를 사용하면,

$$\epsilon(X, T_v) = \gamma t [1 + F(X, T_v)] \quad (2)$$

여기서,

$$F(X, T_v) = \frac{1}{6} (2 - 6X + 3X^3) - \frac{2}{\pi^2 T_v} \sum_{n=1}^{\infty} \frac{\cos n\pi X}{n^2} \exp(-n^2 \pi^2 T_v) \quad (3)$$

$$X = \frac{z}{H}, \quad T_v = \frac{C_v t}{H^2}, \quad \gamma = \text{일정변형율속도}, \quad H = \text{시료높이}$$

식(2)는 정상상태(steady condition)과 전이상태(transient condition)로 분리되며 시료의 거동특성에 따라, 선형적 거동과 비선형적거동을 가정하여 시료의 연직유효응력-간극비-압밀계수-투수계수와 같은 구성식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 선형조건을 가정하였으며 압밀정수는 식(4), 식(5)와 같다.

$$\bar{\sigma}_{v_{ave}} = \frac{1}{3} [2\bar{\sigma}_v(H, t) + \bar{\sigma}_v(0, t)] = \sigma_v - \frac{2}{3} u_h \quad (4)$$

$$C_v = \frac{\gamma H^2}{2 u_h m_v} \quad (5)$$

2.2 일정동수구배 압밀실험

Lowe et al.(1969) 등에 의해 실험방법과 그 이론해가 최초로 제안되었고, 이론해의 유도과정에 필요한 기본가정은 Terzaghi의 일차원압밀이론과 거의 유사하다.

단위요소 $dxdydz$ 를 통한 유체의 유출량은 이 요소의 체적 변화량과 같다는 것에서부터 다음의 식을 유도 할 수 있다.

$$\frac{k}{\gamma_w} \frac{\partial^2 u}{\partial z^2} dxdydz = \frac{\partial e}{\partial t} \frac{dxdydz}{1 + e_0} \quad (6)$$

식(6)은 압축계수와 압밀계수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7)과 같다.

$$\frac{\partial \sigma'}{\partial t} = - C_v \frac{\partial^2 u}{\partial z^2} \quad (7)$$

식(7)에서, 좌변은 변수 z 에 무관하고 우변은 변수 t 에 무관하므로, 양변을 상수로 간주하여 A 로 표시할 수 있다.

$$\frac{\partial \sigma}{\partial t} = - C_v \frac{\partial^2 u}{\partial z^2} = A \quad (8)$$

식(8)를 적분하여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u = \frac{A}{C_v} \frac{H^2}{2} \qua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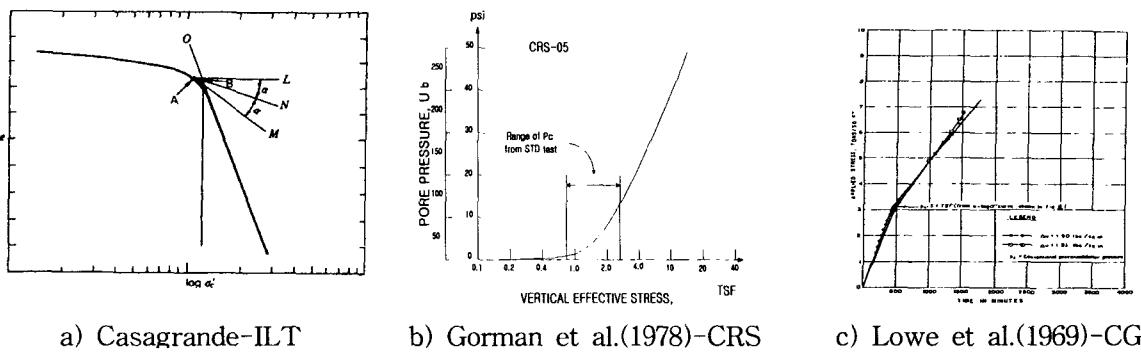
$$A = \frac{2C_v \Delta u}{H^2} \quad (10)$$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식(11)과 같다.

$$C_v = \frac{\Delta \sigma H^2}{2 \Delta t \Delta u} \quad (11)$$

2.3 선행압밀하중(P_c)의 결정

ILT실험의 선행압밀하중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Casagrande(1936)의 도해법<그림 1 a>을 이용하였고 CRS실험의 경우는 Gorman et al.(1978)이 <그림 1 b>과 같이 CRS실험에서의 간극수압과 연직 유효응력관계로부터 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을 P_c 의 범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CG실험의 경우는 Lowe et al.(1969)이 <그림 1 c>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작용응력(σ)와 시간(t)의 관계에서 두 직선사이에 변곡점을 P_c 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변곡점은 Casagrande나 Burmista의 경험적 선행압밀하중 결정방법에서 얻어지는 값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b) Gorman et al.(1978)-CRS c) Lowe et al.(1969)-CG

a) Casagrande-ILT

b) Gorman et al.(1978)-CRS

c) Lowe et al.(1969)-CG

그림 1. 선행압밀하중 결정방법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이용된 시료는 가덕도와 인천국제공항 부지에서 채취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은 <표 1>과 같다.

표 1. 시료의 물리적인 성질

시료	심도 (m)	구분	함수비 ω (%)	액 · 소성한계(%)			입도분포			비중 (Gs)	통일 분류
				LL	PL	PI	sand(%) (#10 ~ #20)	silt(%) (#200 ~ 0.005mm)	clay(%) (< 0.005mm)		
가 덕 도	14.3 ~ 15.2	G1	130.8 ~ 119.6	71.52	39.92	31.60	7.50	41.12	51.38	2.60	OH
	15.6 ~ 16.6	G2	125.5 ~ 121.1	85.95	40.67	45.28	5.57	51.71	42.72	2.68	OH
인천 국제 공항	5.0 ~ 5.7	H1	35.2 ~ 38.1	32.34	17.37	14.97	7.88	81.56	10.56	2.68	CL
	4.2 ~ 4.9	H2	43.6 ~ 41.4	41.30	22.70	19.6	10.56	81.20	8.24	2.70	CL

본 논문에서는 가덕도 인근의 해성점토와 인천국제공항지역의 불교란시료를 이용해 기준의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과 일정변위 압밀실험, 그리고 일정동수구배 압밀실험을 실시하여 실험방법에 따른 흙의 압축특성과 압밀정수의 변화에 대해 각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과 비교하여 그 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 단계별 하중재하 압밀실험은 하중증가비($\frac{\Delta P}{P}$)가 압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하중증가비를 0.5, 1.0, 2.0, 등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 일정변위 압밀실험의 경우는 ASTM에서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제안한 변위속도 0.004%/min, 0.01%/min, 0.04%/min 및 0.08%/min을 적용하여 변위속도에 따른 압밀특성의 변화를 Wissa et al.(1971)가 제안한 정상상태 선형이론조건의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 일정동수구배 압밀실험에서는 상·하부면의 간극수압차를 Sallfors(1971)가 제안한 0.75kpa ~ 12.5kpa의 범위에서 2kpa, 6kpa, 10kpa를 적용하여 동수구배 변화에 따른 압밀특성의 변화를 Lowe(1969)가 제안한 이론식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3.2 간극수압-연직유효응력관계

변위속도를 달리하여 실험한 CRS실험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고, 두 시료 모두 선행압밀하중 이전의 채압 축구간에서는 변위속도에 의한 간극수압의 변화를 찾기 힘들었으나 선행압밀이후의 처녀압축구간에서는 변위속도에 의한 간극수압의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시료 모두 변위속도가 빠를 수록 동일한 압밀응력하에서 보다 큰 간극수압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변위속도가 빠르면 그에 따라 작용하는 유효응력에 의해 하부면에서 발생된 과잉간극수압의 소산 속도가 간극수압의 증가율보다 느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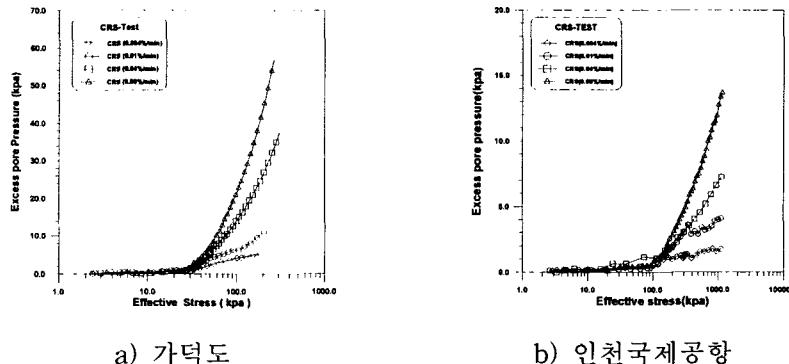


그림 2. CRS실험시 간극수압-유효응력 관계

그리고 각 시료별로 발생된 과잉간극수압의 크기를 살펴보면 초기 간극비와 함수비가 큰 가덕도시료의 경우는 간극수압이 최고 58kpa로 나타났으며, 인천국제공항시료의 경우는 최고 14kpa로 간극수압이 측정되었다. 이처럼 가덕도시료가 인천국제공항시료의 압밀응력보다 현저히 낮지만 높은 간극수압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이유를 Terzaghi는 큰 압축성을 갖고 낮은 투수성을 가진 소성점토에서는 작용 응력에 따른 함수비의 변화가 매우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빠른 변위속도에 대응하여 작용응력이 빠르게 재하되더라도 함수비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간극수의 소산이 더디게 일어남으로써 높은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이 외부응력의 변화와 흙의 함수비 변화의 응답사이의 차이를 시간지체(time lag)라고 하였다. 반면 소성적인 성질이 적고 함수비가 낮은 인천국제공항시료의 경우는 압밀응력이 월등히 가덕도 시료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과잉간극수압의 발생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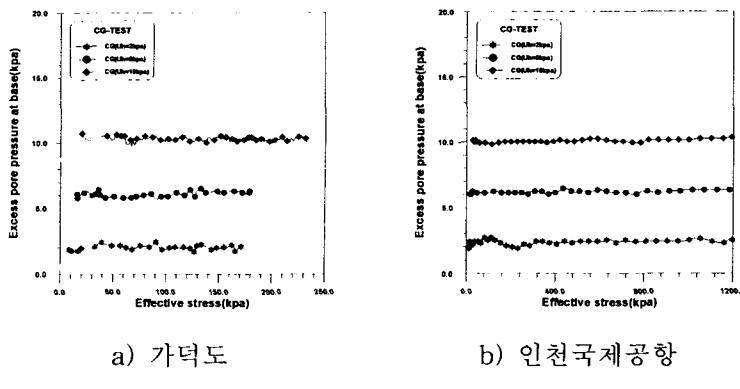


그림 3. CG실험시 간극수압-유효응력 관계

CG실험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극수압-유효응력관계는 실험 시작할 때 정해 준 비배수면의 과잉간극수압이 실험도중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3.3 간극수압계수-연직유효응력 관계

CRS실험의 경우 가덕도시료는 P_c 부근에서 간극수압계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변위속도가 클

수록 간극수압계수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시료는 P_c 이전이나 이후의 간극수압계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소성적인 성질이 큰 가덕도시료는 CRS실험중 선행압밀하중을 지나 발생된 간극수의 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인천국제공항시료의 간극수는 간극수의 배출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가덕도시료의 P_c 이후의 압밀지연현상이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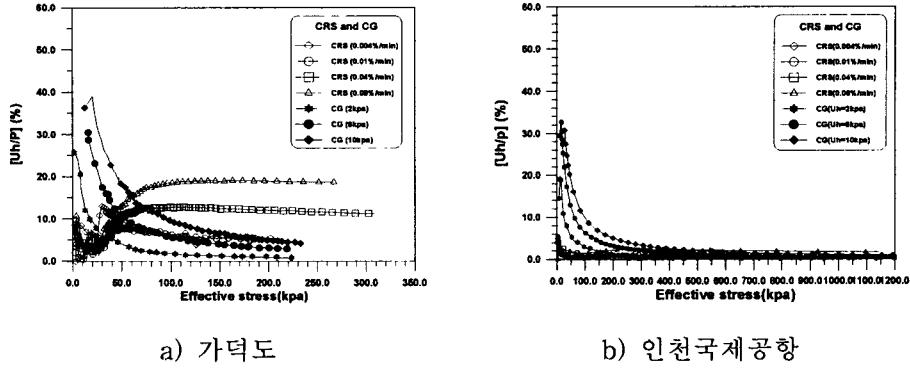


그림 4. CRS, CG실험시 간극수압계수-유효응력 관계

CG실험의 결과, 가덕도시료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시작과 동시에 발생된 하부면의 강제적인 간극수압의 영향으로 실험 초기와 P_c 부근에서 상당히 큰 간극수압계수 (7~30)%가 발생되었고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 결과로 P_c 결정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시료는 간극수압계수의 발생경향은 가덕도시료와 일치하였으나 간극수압계수의 값은 약 (2.5~9)% 정도로 그 값이 상당히 낮았다. 인천국제공항시료의 간극수는 P_c 이전에 상당히 소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3.4 연직변형-유효응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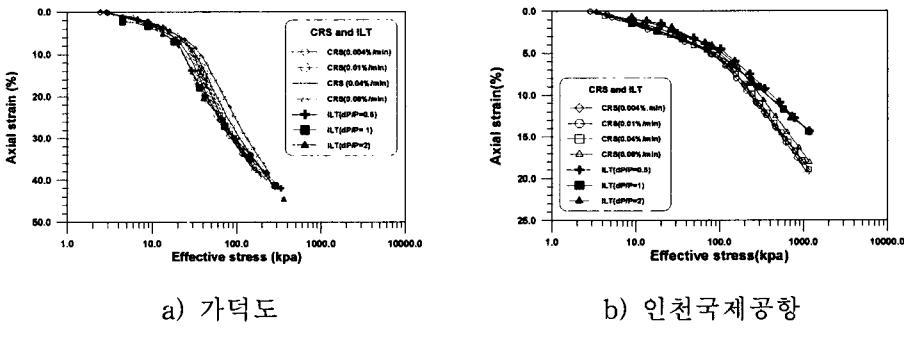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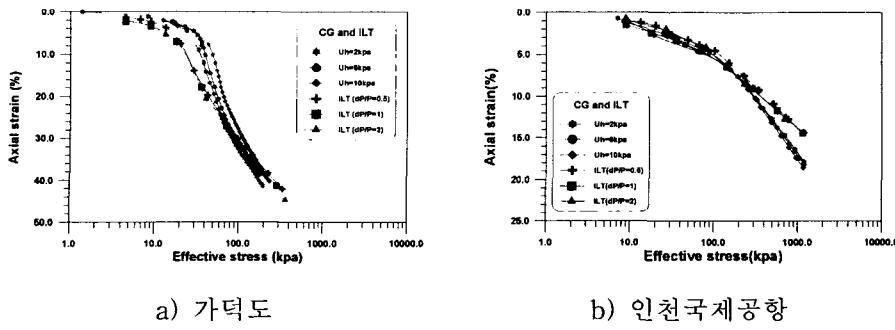


그림 5. CRS실험시 연직변형-유효응력 관계

CRS실험시 두 시료 모두 동일한 압밀응력하에서 변위속도가 증가 할수록 압축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간극수압계수가 크게 발생한 가덕도시료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두 시료의 결과를 ILT실험과 비교한 결과 P_c 이후 가덕도시료는 동일한 압밀응력하에서 압축성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시료는 오히려 ILT보다 압축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절의 간극수압계수의 발생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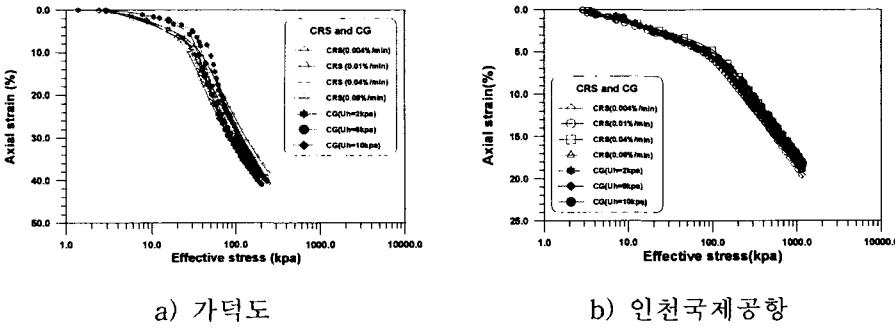


a) 가덕도

b) 인천국제공항

그림 6. CG실험시 연직변형율-유효응력 관계

CG실험의 경우 또한 가덕도시료에서는 동수구배가 커질수록 동일한 압밀응력하에서 압축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간극수압계수의 발생이 미미한 인천국제공항시료에서는 이런 경향을 뚜렷이 찾아 보기 힘들었다. P_c 부근에서 큰 간극수압계수를 나타낸 가덕도시료는 P_c 부근에서 ILT곡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a) 가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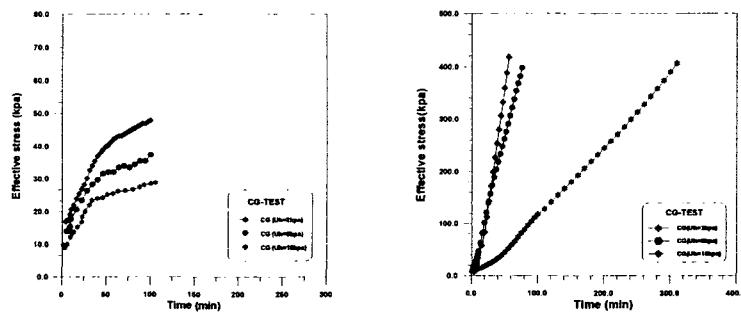
b) 인천국제공항

그림 7. CRS, CG실험시 연직변형율-유효응력 관계

실험방법에 따라 간극수압계수 발생지점이 상이한 가덕도시료는 압밀곡선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간극수압계수의 경향이 적은 인천국제공항시료는 CRS, CG실험시의 압밀곡선이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볼 때 간극수압계수의 값이 클수록 시료의 압축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3.5 선행압밀하중(P_c)의 결정

ILT실험은 기존의 Casagrande(1936)의 도해법, CRS실험의 경우는 Gorman et al.(1978)이 제안한 간극수압-유효응력 관계 그리고 CG실험에서는 Lowe et al(1969)이 제안한 응력-시간관계로부터 선행압밀하중을 결정하였다.



a) 가덕도

b) 인천국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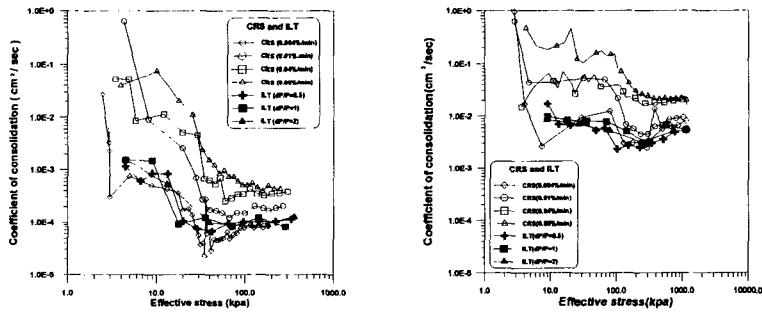
그림 8. CG실험시 유효응력-시간 관계

다음의 <표 2>와 같이 기존의 Casagrande의 도해법으로 구한 P_c 는 두 시료 모두 변위속도나 동수구배가 클수록 표준압밀실험에 비해 과대평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큰 간극수압계수가 발생된 가덕도시료의 CG실험의 P_c 는 상당히 크게 산정되었다. 또한 Gorman et al.(1978)이 제안한 간극수압-유효응력 관계 그리고 CG실험에서는 Lowe et al(1969)이 제안한 응력-시간관계로부터 선정한 P_c 는 CRS, CG실험결과를 Casagrande의 도해법으로 구한 P_c 의 결과보다 ILT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여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 표준압밀실험 ($\frac{\Delta P}{P} = 1$)의 P_c 와 CRS, CG실험으로부터 구한 P_c 의
선행압밀하증비($P_{c(CRS)}/P_{c(conv)}$ 와 $P_{c(CG)}/P_{c(conv)}$)비교

종류	ILT-test	CRS-test								CG-test					
		e- log σ'_v				Uh- log σ'_v				e- log σ'_v			σ'_v -time		
		(표준압밀) $\frac{\Delta P}{P} = 1$		strain rate (%/min)		strain rate (%/min)		pore pressure (kpa)			pore pressure (kpa)				
		.004	.01	.04	.08	.004	.01	.04	.08	10	6	2	10	6	2
G	1	1.05	1.35	1.55	1.65	1.25 ~ 1.50	1.25 ~ 1.50	1.25 ~ 1.50	1.25 ~ 1.50	2.40	1.70	1.50	2.00	1.60	1.20
H	1	1.00	1.00	1.09	1.22	0.91 ~ 1.00	0.91 ~ 1.00	0.91 ~ 1.00	0.91 ~ 1.00	1.45	1.36	1.27	1.36	1.18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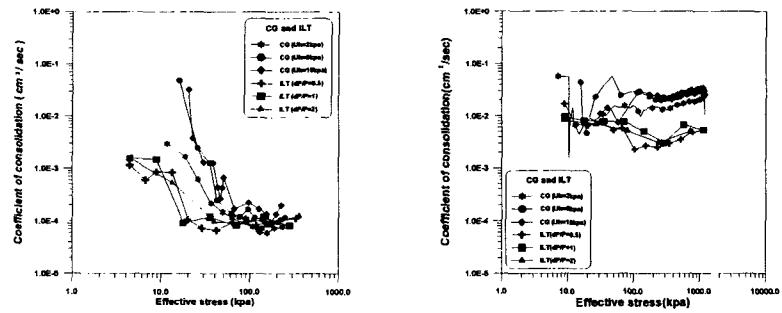
3.6 압밀계수-유효응력관계



a) 가덕도

b) 인천국제공항

그림 9. CRS실험시 압밀계수-유효응력 관계



a) 가덕도

b) 인천국제공항

그림 10. CG실험시 압밀계수-유효응력 관계

두 시료 모두 CRS실험과 CG실험시 재압축구간에서는 시료의 교란, 불균질성등의 이유로 인해 압밀계수(C_v)가 다소 불규칙한 분포를 나타냈으나 P_c 를 지난 쳐녀압축구간에서는 C_v 값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를 Gorman et al.(1978)은 실험초기의 상태는 정상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결과 해석을 정상상태의 식으로 구한 C_v 는 상당히 과대평가되고 믿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변위속도나 동수구배가 클수록 C_v 가 ILT의 결과보다 과대 평가되고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 결론

가덕도 인근 해성점토시료와 인천국제공항시료를 이용해 단계별하중재하압밀실험과 변형율을 변화시킨 CRS, 그리고 비배수면의 간극수압을 달리한 CG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가덕도 시료와 같이 연약하고 함수비가 높은 소성적인 시료인 경우는 압축특성이나 압밀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간극수압계수가 크게 나타났고, 큰 간극수압계수의 영향으로 압밀지연현상, 즉 동수역학적 시간지체(hydrodynamic time lag)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극수압계수의 영향으로 가덕도시료는 인천국제공항시료와 달리 CRS, CG실험시 압밀곡선의 형태가 실험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선행압밀하중이나 압밀계수, 투수계수등은 두 시료 모두 CRS, CG실험에서 변위속도나 비배수면의 과잉간극수압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고 ILT값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위속도나 동수구배가 작을수록 ILT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CRS실험시 ASTM에서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규정한 변위속도의 적용시 ILT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 CRS나 CG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P_c 나 C_v 등은 실험중에 발생하는 간극수압계수의 값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간극수압계수는 시료의 소성적인 성질에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덕도 시료와 같이 함수비가 높고 소성적인 성질이 큰 시료는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덕도와 같은 시료의 연속재하압밀실험시에는 변위속도나 비배수면의 과잉간극수압의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문헌

1. 이우진, 임형덕, 이원제 (1998), “일정변형률 및 표준압밀시험을 이용한 해성점토의 압밀특성 연구”, 한국지반공학회지, 제 14권, 제 4호, pp. 47-60.
2. 채영수, 방의석 (1997), “일정변위압밀실험에 의한 한강오니토의 압밀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97 가을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 pp. 123-130.
3. ASTM, (1989), “Standard Test Method for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Properties of Soil Using Controlled-Strain Loading”, ASTM, D4186-89, pp. 1-5.
4. ELE International Limited. (1986), “Soil Laboratory Testing”, Vol. 3, Pentech Press London, pp. 1197-1225.
5. Gorman., C. T., Hopkins., T. C. , Deen., R. C. , & Drnevich., V. P. (1978) “Constant-Rate-of-Strain and Controlled-Gradient Consolidation Testing”, Geotechnical Testing Journal, Vol, No. 1, pp. 3-15.
6. Lowe, J., III, Jonas, E., & Obrejan, V. (1969), “Controlled Gradient Consolidation Test”, Journal of Soil Mech. and Found. Division, ASCE, Vol.95, SM1, pp.77-79.
7. Terzaghi, K., Peck. R. B. (1967), “Soil Mechanics in Engineering Practice”, Third Edition, John Wiley and Sons, Inc, New York, pp. 100-102, 106, 114-115
8. Wissa, A. E. Z., Christian, J. T., Davis, E. H., & Heiberg, S. (1971), “Consolidation at Constant Rate of Strain”, Journal of Soil Mech. and Found. Division, ASCE, Vol. 97, SM10, pp. 1393-1413.